

# 이명박 후보 독주 계속?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 올 추석 밤상 오를 대선 5대 이슈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이 왔다. 올 추석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친지들 사이에서는 어느 때보다 정치이야기가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여권은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나이가 누가 범여권 후보가 될 것인지, 호남민심이 한나라당 후보에 얼마나 표를 줄지,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입김은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인지 등 올 추석 식탁에 오를 5대 대선 이슈를 조망해본다.

- 1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한가
- 2 광주·전남 몰표 현상 이어질까
- 3 이명박 후보 일방 독주 계속 될까
- 4 전·현직 대통령 입김 통할까
- 5 남북 정상회담 '파괴력'은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둔 가운데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가족·친지가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의 이슈도 단연 대선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년 전인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광주공원에서 열린 후보 유세장에 몰린 청중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한가=범여권은 대통령민주당, 민주당, 문국현 후보 등으로 나뉘어 각개약진하고 있어 과거 어느 선거보다 힘든 상황에 빠져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후보단일화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범여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순 후보를 뽑는 대통령민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장외 리그 주자들의 단일화가 11월쯤 성사되면 메가톤급 위력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일화 전에 범여권 주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증공세를 동시에 펼쳐 이 후보의 지지세를 꺾은 후 후보단일화에 나선다면 그 위력은 배가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손학규·정동영·이해찬 등 대통령신당 후보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조순형·이인제 후보도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다.

물론 대선 주자마다 자신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후보를 포기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단일화를 주장하다가 정작 후보가 되면 당권 유지를 위해 단일화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대권 주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 몰표 현상 이어질까=광주·전남은 역대 대선에서 특유의 응집력을 보여왔다. 지난 1997년엔 김대중 후보에게 광주 97.3%, 전남 94.6%, 2002년엔 노무현 후보에게 광주 95.2%, 전남 93.4%를 몰아줬다.

하지만 17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현 시점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범여권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유동층이 많은 것도 원인이지만 반(反) 한나라당 정서가 무너진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정도는 덜할지 몰라도 광주·전남의 몰표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것이 일반적 예상이다. 아직까지 범여권 후보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대결구도가 분명하지 않은 탓에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일 뿐 상황이 변하면 달라질 것이라 관측이다. 특히 후보 단일화로 호남 민심을 자극하면 그 밀집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후보 일방 독주 계속될까=한나라당 이 후보의 지지율은 50%를 웃돌고 있다. 야당에선 대세론이, 범여권에선 패배주의가 팽배한 이유다. 이 후보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지난해 가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계속돼 1년여 지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검증공방의 파고를 넘기면서 잠깐 위기를 겪었으나 경선에 승리함으로써 지지율을 더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계

속되는 배경에는 '경제'라는 화두를 선점한 효과가 크다.

이명박 대세론은 그러나 외생변수에 힘입은 바도 크다. 참여정부의 인기가 하락하고 범여권의 지리멸렬이 가져온 '반사 이익' 측면이 크다. 즉 지지층의 충성도가 낮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력한 변수가 나타나면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 관측이다.

특히 범여권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또다시 이어질 검증의 파고가 이번에는 더욱 가속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후보의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석 이후로 가다가 잡힌 국정감사가 '시한폭탄'이다. 검찰 수사도 변수다. 미국 체류 중인 BBK 김경전 전 사장의 귀국과 도곡동 땅의 검찰 수사 재개가 조미의 관심사다.

◇전·현직 대통령 입김 통할까=청와대가 한나라당 이 후보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대

선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는 데서 보듯 노무현 대통령은 언제든 대선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범여권 후보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가하면서 고건 후보 등을 낙마시킨바 있다.

현재 청와대 쪽 인사들은 노 대통령의 의중이 이해한 후보에게 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결국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관심사다. 대통령민주당 후보 결정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후보가 결정되면 향후 대선정국에서 간접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 '파괴력'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전반의 안보질서와 직결된 거

대 답론이 정국의 중심의제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담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독주 체제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실정론과 '경제이슈'를 내걸고 대선정국을 일방적으로 주도해왔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이슈'가 수면 위로 전면 부상하면 범여권이 위기탈출의 호재를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대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범여권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회담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뒷거래' 논란을 놓고 정쟁이 격화될 경우 정상회담 자체의 파괴력은 떨어지고 범여권으로서 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볼 수 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이명박 후보 농촌 돌며 민심탐방

### 신당 경선후보 광주 '빅매치' 준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범여권 대선 주자들은 민족의 대이동이 펼쳐지는 22~26일 추석명절 연휴가 수도권과 지방 간 민심전파 통로가 될 것으로 판단, 추석 민심잡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특히 경선 레이스가 한껏 달아오른 대통령민주당 주자 3인은 29일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호남에 '상주'하며 표심잡기에

전력투구할 태세여서 추석연휴 동안의 '호남 대회전'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가위 일정은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빠곡하게 채워졌다. 추석 전날과 당일만 가회동 자택 등에서 잠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뿐 나머지는 민생탐방 등의 공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그러나 24일은 별다른 일정 없

이 부인 김윤옥씨와 가회동 자택에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고, 25일은 경기도 이천의 부모님 묘소를 찾은 계획이다.

대통령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22일 오후 광주역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광주·전남에서 5박6일 동안 광주·전남지역 곳곳을 순회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이 기

간동안 불우소의시설과 지역별 축제 현장을 방문, 지지를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후보는 21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경선 행보를 계속했다. 이날 오후 잠시 경남 창원엔 들른 손 후보는 다시 광주로 돌아와 연휴 기간 내내 버스로 광주·전남지역 곳곳을 순회하며 국민에 직접 다가가는 정치를 보여준다는 각오다.

이해찬 후보는 추석 기간 동안 버스로 부산·경남~광주·전남~대전·충남을 순회하는 필승투어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22일 부산·경남을 거쳐 23~24일 광주·전남에 머문다. 추석인 25일에는 서울에서 차례를 지낸 후, 고향인 충남 청양을 방문해 성묘를 하고, 이어 대전·충남 일정을 소화한 뒤 광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자들도 추석연휴 직후에 실시되는 29일 전북 경선에 대비해 일제히 호남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첫 경선에서 1위를 한 이인제 후보는 연휴기간 전북에 상주하며 버스타우에 나선다. 조순형 후보도 22일 전주에서 군산, 완도, 해남, 진도를 순회하며 바닷표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대선 주자들 추석 민심잡기 “바쁘다 바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b>국회보청기</b> T. 02-227-3644	<b>학내영고시학원</b> T. 042-24-0021	<b>동양지족은행</b> T. 02-227-0189-4	<b>세계스타 세기보험기</b> T. 02-82-8188
<b>전남과학대학</b> T. 051-206-3000	<b>(주)조이트랩</b> T. 042-224-8222	<b>영광은행</b> T. 042-215-1000	<b>경남농협</b> T. 052-221-1100
<b>비나무</b> T. 02-1114	<b>한빛공무원학원</b> T. 042-214-4224	<b>마실주세 후원민 (미)호텔학원</b> T. 042-200-1983	<b>IMPERIAL</b> T. 042-194-8800
<b>MODISH</b> T. 042-212-3814	<b>RODEM</b> T. 042-213-4023	<b>Sme/요리학원</b> T. 042-208-1173-4	<b>SASA &amp; 불교재리</b> T. 02-1197-1894